

# 목포항 기아차 하역 거부 법정가나

## 기아차 “계약 파기로 막대한 손실” 손배소 추진

### 목포신항만측도 “맞대응” ... 하역중단 파국 우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수출차량의 목포신항 하역 중단 사태가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기아측이 목포신항만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21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생한 기아차 하역중단 사태가 7일째 이어지면서 물류피해가 계속되자 기아차가 최근 목포신항 소유주인 목포신항만에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보냈다.

이 서류는 기아 수출차의 목포신항 하역계약이 올해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목포신항만이 15일 일방적으로 하

역을 거부, 계약을 파기해 물류피해가 발생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측은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은 이번 사태가 해결된 듯이 말하고 있으나 현재 어떤 것도 결론이 난 것이 없다”며 “기아차는 5천600대를 동시에 야적할 수 있는 10만7천250㎡(3만2천500평)의 야적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출량을 바꾸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목포신항만이 정부와 맺은 계약 때문에 발생한 문

제를 전혀 관계가 없는 기아에 적용, 일방적으로 하역을 거부함으로써 기아와 맺은 계약을 파기했다”며 “일부에서 기아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항구에서 동일한 대당 1만7천원의 선적료를 목포신항에서만 6만6천원을 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신항만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시와 항만청 등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아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풀리지 않았다”며 “법적소송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니 만큼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고 밝

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목포신항만이 수익성을 이유로 목포신항에 반입되던 기아 수출차량 300대의 하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목포신항만은 부두 건설 당시 정부와 맺은 ‘화물 1t 처리시 5천500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협약에 따라 12t 기준 수출차 1대의 경우 선적료로 6만6천원을 받아야 하나 실제 대당 1만7천원을 받기 때문에 2004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 200억원대의 손실이 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아차는 사태의 원인이 목포신항만과 정부간 계약 내용에 있는 만큼 두 당사자가 문제를 풀어 기아차의 수출이 목포신항에서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전남도, 美에 투자마케팅 기관 설립

## 박지사, 美 연방 하원의원 일행 면담

### 양측 공동 설립 합의 ... 투자자 유치

전남도의 미국내 투자마케팅을 담당할 기관이 설립된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1일 도청에서 제리 웰러(Jerry Weller·51)미 연방 하원의원 일행과 면담을 갖고 전남의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미국에 전남도 투자 마케팅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사진>

웰러 의원은 일리노이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7선이자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위원으로 미 기계제조업협회(AMMO) 조지프 스미스(Joseph K.Smith) 회장, 휴먼컨설팅그룹 데이비드 드리난(David M. Drinan) 이사 등 기업인들과 함께 ‘광양항 국제포럼’(23~25일)에 참석해 전남의 투자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남에 왔다.

박 지사는 이날 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2012년 여수엑스포, 2010년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을 설명하고 미국 기업들의 전남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이에 따라 미 기계제조업협회가 전남도와 미국 현지에서 투자마케팅 회사를 공동 설립한 뒤 잠재 투자자들을 파악해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스미스 회장은 “아시아 지역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파악해 전남이 최적지임을 홍보하겠다”며 “산업별 전문가를 활용하면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조만간 투자마케팅 회사 설립 방안과 이들에게 지급할 인센티브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 닭·오리고기

## 안심하고 드세요

### 전남농협 운영협 소비촉진 나서

전남지역 농협조합장을 대표하는 전남농협 도운영협의회(위원장 김병원)가 AI(가금류 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을 나섰다.

21일 광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한 도운영협의회는 “닭·오리고기는 75℃에서 5분만 끓이면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사진>

한편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매주 수요일은 닭·오리고기·계란 먹는 날’로 지정,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는 등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축산농가의 조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오비맥주 ‘카스챌린지’

## 호남권 대학생도 참가

오비맥주(대표 이호립)는 서울·수도권 충청지역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 카스를 내세워 ‘2008 카스챌린지(Cass Challenge)’를 호남·영남지역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스챌린지는 호·영남지역 대학생들에게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브랜드 홍보대사로서의 임무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에는 호·영남지역 대학(원)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명이 한팀을 이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5월9일까지 홈페이지(www.cass-challenge.com) 또는 우편(서울시 강남구 논현동10-7 두산빌딩 6층 카스챌린지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및 인터뷰를 거쳐 총 30팀이 ‘카스 챌린저’로 활동하게 된다. 1차 서류전형 발표는 5월 16일, 2차 면접은 5월20일에서 23일까지 각 지역별로 진행되며, 최종 발표는 5월 26일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6월, 8월, 9월에 열리는 마케팅 챌린지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인 챌린지 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3월중 지역 수출 급증

## 광주 8억불·전남 23억불

광주와 전남지역의 3월중 수출이 전남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2일 광주세관이 밝힌 ‘3월 광주·전남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은 각각 8억5천200만달러, 23억2천400만달러로 전월대비 20.9%, 8.7%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반도체, 승용차, 가전

제품, 자동차 타이어 등이 수출을 주도했고 전남은 석유제품, 유기 및 무기화합물, 철강제품 등이 활발했다.

3월중 광주의 무역수지는 4억3천600만달러 흑자로, 지난 2003년 4월 이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전남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유와 주요 석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11억4천500만달러 적자였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영세 자영업자 대출 지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NH-뉴 스타트론’을 관매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사업성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사업장당 1천만원 이내이

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전액보증서대출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으로 1조원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개인은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주거래금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장과 거주지(주택)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재무제표(2년), 주주명부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기업체는 전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중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한한다. 부동산업, 주점업, 골프장, 무도장, 귀금속 등 일부 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제외된다.

자금지원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서 실시하며, 문의사항은 농협점포와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광천 e-편한세상’ 아파트 1,096세대 분양

대림산업은 광주시 서구 광천동 구 송원학원 부지에 ‘광천 e-편한세상’아파트 1천96세대를 분양한다. <조감도>

‘광천 e-편한세상’은 총 25개동(13~15층)이 정남향으로 배치되며, ▲111㎡(528세대) ▲142㎡(292세대) ▲164㎡(168세대) ▲194㎡(108세대) 등이 공급된다.

단지 일대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버스터미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인근에 광천동 재개발 및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조성 등도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3.3㎡당 710만~800



만원으로, 면적별로는 111㎡(701만~715만원), 142㎡(802만~818만원), 164㎡(842만~859만원) 등이다. 견본주택은 25일 광주버스터미널 맞은편에 문을 연다. 문의 062-368-50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eegi Bocheonggi' (World's Best) insurance. The ad features a cityscape background with a large graphic of a person's head and shoulders. Text includes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and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It also lists '승세기소라·세계보청기'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1588-8426 / 062-722-0100. The bottom of the ad shows various logos and smaller text.